

경상북도, NEAR 김옥채 사무총장 임명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2019.05.17.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TV	현대HCN	5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옥채 전 후쿠오카 총영사 임명	
2	신문	중앙일보	경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 外	사랑방
3	신문	매일경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씨 임명	
4	신문	대구일보	NEAR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5	신문	대구신문	동북아자치단체聯 사무총장에 김옥채씨	
6	신문	경북매일신문	NEAR(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후쿠오카 총영사	
7	신문	경북도민일보	道,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씨 임명	
8	신문	대경일보	NEAR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9	신문	경북문화신문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10	신문	다경뉴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11	통신사	연합뉴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씨 임명	
12	통신사	NSP통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13	통신사	중부뉴스통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14	온라인	아주경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15	온라인	뉴시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후쿠오카 총영사	
16	온라인	뉴스랩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17	온라인	프레시안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18	온라인	노컷뉴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김옥채 사무총장 임명	
19	온라인	쿠키뉴스	경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씨 임명	
20	온라인	업코리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21	온라인	뉴스웍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후쿠오카 한국총영사	
22	온라인	세계타임즈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23	온라인	경북인터넷뉴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사랑방]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 外

[중앙일보] 입력 2019.05.17 00:04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대표 박노형)은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통일교육협의회와 서울통일교육센터가 주최하는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가 23·24일 서울 동송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다. 통일을 주제로 한 공연과 체험 교육 행사가 마련된다.

◆광역 차원의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 '동남권광역연합'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인 '동남권발전협의회' 출범식 행사가 15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부산에서 개최됐다.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안병일 사무처장은 20일 한국스카우트연맹 회관에서 열리는 서울시청소년육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청소년단체의 현황과 미래'의 주제로 강연을 한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는 17일 한국YWCA연합회관 앞에서 북한어린이돕기 거리캠페인을 펼친다. '북한어린이,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주제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모금 참여를 할 수 있는 나눔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는 16일 서울교육대 사향문화관에서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을 개최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씨 임명

입력 : 2019.05.16 15:12:37

경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주일본 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김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주일본 한국대사관 공사 등을 지냈다.

김 사무총장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신뢰·우호 협력을 돈독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여러 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 교류와 협력으로 '하나 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사무국은 포항테크노파크에 있으며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가입해 있다.

haru@yna.co.kr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화여대(총장 김혜숙)는 창립 133주년 및 고 김영의 교수 타계 33주년을 맞아 '김영의 선생님 추모 음악회'(22일 오후 7시)와 '김영의 선생님 사진·유물전'(20~25일)을 개최한다.

◆경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제5대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주일본 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일보

사람

NEAR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기사 입력 : 2019-05-16 22:54:00 최종 수정 : 2019-05-16 22:54 기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 주 후쿠오카 한국총영사가 임명됐다.



1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는 김옥채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경북도 제공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주일(駐日) 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 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이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 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

교 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며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무국의 역할 정립과 회원 상호 간 신뢰.우호 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AR는 동북아시아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 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사무국은 포항시(포항 테크노파크)에 있고,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기자

동북아자치단체聯 사무총장에 김옥채씨

김상만 승인 2019.05.16 21:00

前 후쿠오카 총영사로 일본 전문가



경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 주(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駐日)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駐)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

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 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만

경북매일

HOME > 지방자치 > 일반

NEAR(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후쿠오카 총영사

손병현기자 승인 2019.05.16 20:13

“경북 북방 통상 거점지 만들것”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가 김옥채 NEAR 신임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 제5대 사무총장에 김 옥채 전 후쿠오카 한국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주일본 한국대사관 공사 등을 지냈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 관계, 한·일 관계악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신뢰·우호 협력을 돈독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 북방지

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해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병현기자

道,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씨 임명

김우섭기자 2019.05.16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사진>씨를 임명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駐日)한국 대사관 1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駐)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했다.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 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기이다"며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 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포항 테크노파크)에 위치하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섭기자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대경일보

HOME 종합뉴스 사회

NEAR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사무국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우호협력에 최선 다할 것

이임태 기자

승인 2019.05.16 20:35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김옥채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 주 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NEAR는 동북아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1996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주일 한국대사관 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 후쿠오카 총영사까지 36년간 외교업무를 했다.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 NEAR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을 교류하면서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국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 경북도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 역점시책인 신북방정책에도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NEAR는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 동북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포항시(포항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사무국에는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면서 동북아 지자체외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임태 기자 sinam77@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임명

"사무국 역할정립 및 원상호 간 신뢰·우호 협력에 최선"

2019년 05월 16일 [경북문화신문]



© 경북문화신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前) 주(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가 를 임명됐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주일(駐日)

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駐)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현재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 상호 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라시아, 한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하여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 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포항 테크노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안정분 기자
“”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문화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문화신문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 협력에 최선

기사입력시간 : 2019/05/16 [23:48:00]

백두산기자

[다경뉴스=백두산기자]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 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前) 주(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임명장 수여(김옥채) © 백두산기자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駐日) 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駐)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하여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포항 테크노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여러 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쇄하기

닫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씨 임명

기사입력 2019/05/16 15:12 송고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가 김옥채 NEAR 신임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주일본 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김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주일본 한국대사관 공사 등을 지냈다.

김 사무총장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신뢰·우호 협력을 돈독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여러 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 교류와 협력으로 '하나 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사무국은 포항테크노파크에 있으며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가입해 있다.

har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16 15:12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2019-05-16 15:52, 조인호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경상북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왼쪽부터)김옥채 신임 사무총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駐日)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駐)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다"며,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해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포항 테크노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여러 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전국 경북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 협력에 최선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승인 2019.05.16 14:45



▲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

[중부뉴스통신]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 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서관, 공사 등을 거쳐 주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

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해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여러 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 상호간 신뢰·우호 협력에 최선

(포항) 최주호 기자 (cjh@ajunews.com) | 입력 : 2019-05-16 04:30 | 수정 : 2019-05-16 04:30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김옥채 신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 주(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駐日)한국대사관 1, 2등서기관, 참서관, 공사 등을 거쳐 주(駐)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 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낸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 상호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해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 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여러 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항) 최주호 기자(cjh@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립중앙도서관

NEWSIS 지방 > 대구/경북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후쿠오카 총영사

류상현 기자 | spring@newsis.com

등록 2019-05-16 15:59:03



【안동=뉴스시스】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가 16일 신임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9.05.16 (사진=경북도 제공)

【안동=뉴스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6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

김옥채(59)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주일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2016년 주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으로 동북아시아 관계가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교류협력 증진으로 지역의 공동발전을 이루면서 회원간 신뢰와 우호협력이 돈독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으로 정립하고자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중앙정부의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지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경북 포항테크노파크에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spr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레프

HOME > 사회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윤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5.16 15:19

|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 협력에 최선



▲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

[뉴스레프]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서관, 공사 등을 거쳐 주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

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 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해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여러 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레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만 기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사무국의 역할정립 및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 협력에 최선

최종수정 2019.05.16 21:00:23 | 이영균 기자(=경북) | lyq0203@hanmail.net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왼쪽> 전 일본 후쿠오카 한국총영사가 임명된 가운데 이철우 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있다.©경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일본 후쿠오카 한국총영사가 임명됐다.

경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前) 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주일 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서관, 공사 등을 거쳐 주(駐)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해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영균 기자(=경북) (lyg0203@hanmail.net)

창달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김옥채 사무총장 임명

2019-05-16 15:09 대구CBS 권기수 기자

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역임



임명장 수여(사진=경북도 제공)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5대 사무총장에 김옥채(59)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가 임명됐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역임한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간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기구로 현재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됐으며 농업과 관광 등 17개 분과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5151864>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씨 임명

기사입력 2019.05.16 17:23:46 | 최종수정 2019.05.16 17:23:46 | 노재현 | njhkukinews@gmail.com



경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59세. 사진 왼쪽) 전(前) 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16일 임명했다.

신임 김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駐日)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駐)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면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 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성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명실상부한 동북 아시아자치단체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당시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로 늘어났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포항 테크노파크)에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njhkukinews@gmail.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 김시온 기자 | Ⓞ 승인 2019.05.16 17:23

|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 협력에 최선



▲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

[업코리아]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서관, 공사 등을 거쳐 주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해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여러 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업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시온 기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전 후쿠오카 한국총영사

문봉현 기자 승인 2019.05.16 17:28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 협력에 최선"



이철우(오른쪽) 도지사가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前) 주(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駐日)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駐)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 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해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포항 테크노파크)에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여러 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봉현 기자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 협력에 최선

[세계로컬핫뉴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이창재 기자 news@thesegeye.com | 2019-05-17 00:02:30



[경북=세계타임즈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前) 주(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駐日)한국 대사관 1.2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駐)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 상호 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하여 위치적으로 전략적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포항 테크노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여러 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경북인터넷뉴스



뉴스룸 오피니언 인사이트 시민참여

회사소개 독자(후원)가입 기사제보 전국네트워크



경북도 총괄건축가 운영으로 도 시품격 높인다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초대원장 조은기 前 국립농



사령경북인터넷뉴스 정준성기 자 명



장세용 구미시장 동정, 14일 정 수대전 참석 예정

인사이드 > 인물동정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기사입력 2019-05-16 16:55 최종수정

복사 목록 인쇄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제5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채 전(前) 주(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주일(駐日)한국대사관 1.2등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駐)후쿠오카 총영사를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베테랑 일본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

최근 많이 본 기사

1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초대원장 조은기 前 국립농업과학원장 임명



2 장세용 구미시장 동정



3 장세용 구미시장 동정



4 경북도 총괄건축가 운영으로 도 시품격 높인다



5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



“세상을 바꿉니다”

사건, 사고, 미담 등 기사제보해 주세요.

기사제보 054) 452-8030

온라인제보

베스트기사

[단체행사뉴스] 신천지자원봉사단 구미지부 어버이날...

[단체행사뉴스] 신천지자원봉사단 구미지부, 소문난 '...

[정치,국회뉴스]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을 장군으로 칭...

[구미시장뉴스] 5월 14일 구미시 읍, 면, 동 종합 소식

[정치,국회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구미보에서...

[단체행사뉴스] (재)선도문화진흥회 만월 도전은 '그냥...

[기관단체] 김재규 장군 발언 장세용구미시장 즉각...

[지방의회소식]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무산

[화제의인물] 구미대 박지수 씨, 바텐더 대회 '대상'...

[독자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부정 구미시는 강의영...

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옥채 사무총장은 지금 동북아시아는 첨예한 북미관계, 한일 관계악화, 북러 친교 강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국들이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역할정립과 회원상호 간 신뢰·우호협력을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로로 대변되는 환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강화하여 위치적으로 전략지인 경북도를 유라시아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 중앙정부 역점시책인 신남·북방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8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농업, 관광, 환경, 방재 등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포항 테크노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국 회원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전문분야 직원 등 16명이 근무하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의 지방자치단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협력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여러 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Hot 포토이슈

2 / 2



경상북도 새살림장학회



경북인터넷뉴스 최현영대표 전국 협회 부회장 임명



해외자문위원협의회, 포항지진 피해에 성금 전달



4월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상황

경북인터넷뉴스 (gbinews@hanmail.net)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기사후원하기 >

구독신청하기 >

여러분의 후원이 경북인터넷뉴스의
가장 큰 힘입니다!

경북인터넷뉴스 후원하기 >

후원/행사취재요청

☎ 054-452-8030

iNEWS 인물동정 관련기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에 김옥채 前 駐후쿠오카 한국총영사 임명